

4·15총선 민주당 경선 격전지 분석

풀뿌리 정치인 vs 정치 신인

| | |
|---|---|
| | |
| 학력 중국 북경대학원졸업 국제정치학 전공 법학박사 | 학력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졸업 (사회복지학 석사) |
| 경력 (전)문재인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 경력 (현)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 |
| 주요 공약 ·차세대 전력에너지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광주실리콘밸리(GCC) ·문화콘텐츠·ICT 융복합 문화·산업단지 | 주요 공약 ·나주와 영산강권의 에너지 경제벨트 구축 ·무등산권의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 ·한전공대와 연계한 융복합 대학원 설립 |

광주 동남갑
윤영덕, 靑 행정관 출신
정치 첫 발...신선함·패기 강점
최영호, 시의원·재선 구청장
탄탄한 지역 기반 강점

단지로 육성 등의 5대 핵심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은 대촌동 중심의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에 차세대 전력에너지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공약 이행 계획도 세웠다.
에너지 삼각벨트 형성은 남구와 나주 혁신도시, 빛그린 산단을 연계하는 것으로, 에너지산업을 남구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밖에 호남권 바이오헬스 중심도시 건설과 백운광장 일대 청년 문화·산업 복합도시 육성, 에너지밸리와 송암공단, 백운광장으로 이어지는 '차세대 문화·산업 삼각벨트' 구축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 예비후보는 "남구민과 함께 해온 풀뿌리 정치 20년을 기반으로, 지방과 중앙 정치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중앙정치를 혁신하고, 누구보다 남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남구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광주 동남권 미래발전을 위한 5개 전략 20개 과제를 제시했다.
남구와 나주·화순을 잇는 사회적 경제 벨트 조성을 통한 광역경제공동체 형성과 ▲나주와 영산강권의 에너지 경제벨트 구축 ▲무등산권의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 ▲한전공대와 연계한 융복합 대학원 설립 ▲평생학습 체계 선진화를 통한 문화교육특구 위상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선정했다.

또한, ▲대촌·남평지역 전라도 천년공원 조성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역사문화거리조성 등의 역사·문화 혁신벨트 구축도 미래전략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청년부채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여성의 경력단절과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3파전...경선 가장 치열

| | |
|--|---|
| | |
| 학력 중앙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졸업(언론학 박사) | 학력 성균관대학원 전자전기컴퓨터 공학과 졸업(공학석사) |
| 경력 (전)노무현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전)방통위상임위원(차관급, 문 대통령 임명) | 경력 (전)문재인대통령후보 광주상임선대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 주요 공약 ·광주의 신경제 지도 ·인터넷 기업 생태계 ·광주경제 재생 프로젝트 | 주요 공약 ·삼성 전장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군공항·탄약고 이전, 군사보호구역 해제 |

광주 서구을
고삼석 "준비된 일꾼" 지지 호소
양향자, 지역 대표 여성 정치인
이남재 "약자 위한 정치할 것"

광주 서구을 선거구는 광주 8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내 경선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 중 하나다. 애초 4명기강의 후보가 경쟁을 한 뒤 현재는 고삼석(52) 방통위상임위원(차관급, 문 대통령 임명), 양향자(53)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남재(52) 전 이낙연 전남도지사 정무특별보좌관이 경쟁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도 차관급(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고 전 상임위원은 폭넓은 경험을 앞세워 표밭을 다지고 있다.

고 전 상임위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배웠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되고 준비된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광주 시민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데, 저는 20여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치에 첫 발을 내딛는 정치신인이며 새로운 인물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ICT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기반 '광주의 신경제 지도' ▲인터넷 기업 생태계 구축 ▲가칭 '광주경제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2030년 지역내 총생산 50조원 달성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상무, 민주당 일본경제전략 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을 맡았던 양 전 최고위원은 광주·전남지역 대표 여성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세를 넓히고 있다.

이남재(52)
서강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정치학 석사)
(전)이낙연 전남도지사 정무특별보좌관
(전)KBC 광주방송 때부터 시사평론가
·서구 신성장축 '회재로' 개발
·화정3·4동 상무2동 '빛물·하수 분류화 사업' 추진
·'공공실버주택' '서청 유치·어르신 복지서비스' 확충

양 최고위원은 "광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일자리도 부족해 청년들이 타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광주 경제의 유일한 대안이 양향자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총선에 승리하여 광주 경제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삼성 전장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군공항·탄약고 이전, 군사보호구역 해제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 ▲두드림복합문화센터 건립지원 ▲서창동 관광산업 기반 조성 등이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 시절 1대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낸 이 전 보좌관은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지낸 경험을 살려 폭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전 보좌관은 "정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림자처럼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친구 같은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의 주요공약은 ▲서구 신성장축 '회재로' 개발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초과 연임제한 추진 ▲5·18, '민중항쟁'으로 명칭변경 위한 시민공론화 추진 등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수~고흥 바다 잇는 길 이름 '백리섬섬길'

10개 섬·11개 해상교량 연결
전남도는 26일 "여수 돌산에서 고흥 영남 간 10개 섬, 11개 해상교량으로 연결한 39.1km 도로의 새로운 이름으로 '백리섬섬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월 23일부터 15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수와 고흥 바다를 잇는 길'에 대해 명칭을 공모했다. 전국 곳곳에서 270여건이 접수됐다. 전남도 지방위원회는 자문을 거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여수시, 고흥군과 함께 최종 선정작을 결정했다.
'백리섬섬길'은 여수에서 고흥 간 연결 거리인 '백리'에 섬과 섬을 잇는 바닷길이라는 의미이다.
'백리섬섬길'을 더한 표현으로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남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누구나 쉽게 기억하며 부를 수 있는 명칭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백리섬섬길'을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의 기반으로 활용해 호주 그레이트 오션로드나 미국 오버시즈 하이웨이, 노르웨이 아틀란틱 오션로드와 같은 세계적인 명품관광도로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백리섬섬길 구간에는 여수 돌산-화태(17개), 화태-백야(4개), 백야-화양(17개), 화양-적금(4개), 적금-고흥 영남(17개)을 잇는 11개의 해상교량이 건설됐거나 건설 중에 있다.
화양-적금 구간(4개)은 오는 28일 개통하며, 올해 착공예정인 화태-백야 구간(4개)까지 2028년 완공되면 백리섬섬길의 전 구간이 연결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실시간 어장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2022년까지 113개 관측장비 구축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26일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수산물 피해 예방,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해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고 밝혔다.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은 해역별로 어장관측 장비를 설치해 수집한 해양자료와 기상, 조석예보 등 어업인에게 필요한 중요 정보를 스마트폰 앱 '전남바다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7개소에 어장관측 장비를 시범 설치해 관측자료를 제공 중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1억 6000만 원을 투자해 전남 14개 시군 해면양식장에 113개소의 어장관측 장비를 추가 설치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6%를 차지해 고·저수준에 따른 양식생물 폐사와 질병 확산, 유해생물(적조, 해파리)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양식생물의 산란·채모 시기가 달라지고 해양생물의 서식처가 변하고 있지만, 어업현장은 과거 양식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어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이 확대 구축되면 실시간 수집·축적한 해양자료를 빅데이터화할 수 있다"며 "양식전문의의 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양식품종별 먹이 급이, 채모, 출하 등에 대한 최적의 양식 행동요령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남바다알리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북포지(061-983-4511)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취임

제 4대 광주전남연구원 원장에 박재영(64·사진) 전 광주대 부총장이 취임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은 전남 임시 이사회를 열어 원장 선임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임명했다.
박 원장의 임기는 2023년 2월 24일까지 3년이다.
박 신임 원장은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공모에 단독 응모했다.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남도, 옛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을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